



미니앨범 'OO' 발표...도깨비 OST 제치고 8개 음원차트 정상

“대표곡인 ‘양화대교’ 좋아하는 노래지만 또 다른 콤플렉스”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피처링 보컬이던 자이언티(본명 김해솔·28)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곡을 발표하고 싶었다. 소속사가 없던 그는 무작정 한 앨범유통사에 전화했고 2011년 4월 데뷔 싱글 ‘클릭 미’(Click Me)를 발표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는 독특한 장법의 유망한 무명 가수에 불과했다.

6년 사이 ‘양화대교’와 ‘꺼내먹어요’, ‘그냥’을 히트시키며 그의 위치는 180도 바뀌었다. 차트에서 파괴력을 가진 ‘음원 강패’, 한국적인 솔(Soul) 장르의 대표 주자로 안착했다.

1년 4개월 만에 발표한 미니앨범 ‘OO’는 대중적인 신뢰를 반영하듯 8개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전 차트 10위권에 수록곡 5~7곡을 진입시키며 tvN 드라마 ‘도깨비’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가 주도한 권력 구도에 균열을 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더블랙레이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이언티는 “눈을 보고 말하고 싶었다”며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를 벗은 채였다. 취재진조차 눈썹이 살짝 처진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사실 시력은 1.0 이상으로 좋아요. 언젠가 아버지 선글라스가 있어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썼는데 노래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쪽 쓴다 보니 지금의 아이덴티티가 생겼어요. 아마도 제 스타일리스트가 세계에서 안경을 가장 많이 갖고 다닐 겁니다. 하하.”

앨범 제목인 ‘OO’도 그를 상징하는 안경 모양에서 따왔다. 그의 시각으로 만든 음악이니 ‘시각’, ‘시야’란 의미도 있고 음악이 그와 대중 사이의 ‘교집합’ ‘벤 다이어그

램)이란 뜻도 담겼다고 한다.

일기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써내려간 노랫말은 타이틀 곡 ‘노래’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누군가를 위해 만든 노래가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해’란 가사는 역설적이다.

“가사는 농담이죠. 하하하. 이 노래가 정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만들었어요. 저 혼자만의 일기를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기분이 어떨지를 상상하며 만든 곡입니다. ‘연애하느냐’는 댓글을 봤는데 물론 연애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사랑의 감정을 깎아내내 담았어요.”

수록곡 곳곳에는 일상에서 느낀 감정들, 마음 속 고민 등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 말하듯 톡톡 내뱉는 장법 덕에 그의 독백을 흡수해 듣는 느낌도 든다. 지난 2015년 만든 ‘바람(2015)’에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대중이 공감할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진다. ‘콤플렉스’에선 대표곡인 ‘양화대교’를 지날 때마다 다 전하는 이들에게 ‘근대 그 다리가 뭐 상관인데’라는 투정을 부린다.

그는 “내가 보여드리는 음악 행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양화대교’ 한 곡으로 기억해주는 분들이 많다”며 “좋아하는 노래지만 ‘양화대교’가 또 다른 콤플렉스라는 생각으로, 더불어 다른 노래로도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으로 쓴 가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으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성공하고 싶다가보다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며 “호불호가 있겠지만, 노래는 유명해지면 좋겠다. 자이언티란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건 너무 좋다”고 강조했다.

이번 앨범은 자이언티가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인 더블랙레이블로 이적한 뒤 처음 선보이는 신보다. YG 프로듀서 테디가 대표인 레이블이어서 음악적인 변화에 관심이 높았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업하던 프로듀서와 스태프가 동일해 내 색깔을 지킬 수 있었다”며 “큰 회사에 오면 ‘터치’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앨범 커버와 아크 워크, 뮤직비디오까지 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줬다. 내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해주니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레이블을 옮긴 배경으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배움을 얻고 싶은 측면이 가장 컸다”며 “또 함께 작업하는 프로듀서인 쿠시와 피제이가 친한 친구이자 동료여서 자연스럽게 옮겨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콤플렉스’에 피처링한 지드래곤에 대해서도 본받고 싶은 선배라고 치켜세웠다.

“저의 대부분의 관심사가 창작하는 일인데 지드래곤 형은 앞서 많은 일을 해왔고 걸여온 길을 보면 존경심이 생겨요. 아직 인간적으로 아주 친하지 않은데 어찌 앞으로 친해지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새해인데 술 한잔 하자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이 곡의 ‘내가 아이돌이었을 좋겠어/잘 참 주고 잘생긴 놈/사랑 노래만 쓰면 되니까/노래 못하면 벗으면 되니까’란 노랫말이 아이돌 비하라는 오해가 있다는 말에 손사래를 쳤다.

“아이돌 팬들이 이 대목에 화를 내더라고요. 수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희박한 경쟁률을 뚫고 데뷔에 성공한 분들인데 감히 비하할 수 있나요. 길이 달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한 것은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연합뉴스

신혼일기 내일 첫방



“힘쓰는 구혜선·요리하는 안재현 바뀐 성 역할 지켜보는 재미 쏠쏠”

는 내린 강원도 인제 산골집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갇힌 결혼 8개월차 배우 안재현·구혜선 부부. 둘이 붙어만 있어도 동화 속의 한 그림이 아닐까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카메라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러 들어온 제작진도 무시한 채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역시나 신혼부부 중 하나였다고 한다.

나영석 PD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스타퍼드호텔에서 열린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신혼일기’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가 없는 작은 ‘비밀의 방’을 마련해줬는데, 싸움이 깊어지면 결국 그 방으로 들어가서 긴 대화를 나누고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우형 PD도 “여과 없이 박 터지게 싸우는 면도 있어 편집할 때 고민을 했다”며 “그런데 이 부부는 고향을 지르거나 하지 않고 비밀의 방에서 6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등 갈등을 푸는 과정이 좀 특이하다”고 전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바뀐 것도 안재현·구혜선 부부의 신혼일기를 지켜보는 또 다른 재미다.

나 PD는 “탈탈한 혜선씨는 못질이나 페인트칠 등 힘쓰는 일을 많이 하고, 섬세한 재현씨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며 “또 혜선씨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데 재현씨는 옆에서 계속 놀아달라고 조른다. 전통적인 부부상과는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이런 독특한 면은 나 PD의 계획에 없던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나 PD는 “‘신서유기’를 하면서 재현씨가 결혼을 했고 부부와 왕래하다 보니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재밌어 보이고, 신혼은 평생에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연애나 결혼이 아닌 진짜 연애인 부부의 신혼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모든 채널을 통틀어 ‘신혼일기’가 최적이다. 더군다나 안재현과 구혜선을 한꺼번에 예능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다. 또한 작곡가 겸 가수 유희열이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맡아 한창 막바지 작업 중이다.

촬영장소를 산골짜기로 잡은 건 실제로 안재현·구혜선 부부가 시골에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사석에서 밝힌 적이 있어 ‘예행연습’ 삼으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촬영 제의 사흘 만에 흔쾌히 응한 부부에게 제작진이 요구한 건 ‘아무리 크게 싸워도 집에 가기 없기’ 딱 하나.

부부가 기르는 반려견 감자·군밤·순대와 반려묘 안주·망고·쌈 등 동물식구들의 활약도 재미 포인트 중 하나다. 3월 밤 9시20분 첫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힐링다큐 3부작 (나무야 나무야)(재)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재)	00 불어라 미용사 (재)	00 안면 자두야 3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 민주당>
12	00 KBS 뉴스 12	05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재)	00 MBC 정오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 민주당>	10 SBS 12 뉴스 30 KBC 12 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기획 문화사책 55 설기획 우리말 겨루기(재)		05 불어라 미용사 (재)	55 닥터 365
2	55 이웃집 할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5 리얼스토리 논 30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4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해!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동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강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드라마 스페셜 <사랑, 빛의 열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미래를 여는 열쇠, 항공우주산업>	10 해피 투게더	10 세계지식 판타지-우주의 별이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영상앨범 산(재)	20 MBC 뉴스 24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뽀뽀뽀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2 08:30 울강한 소방차 레이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스태이크 크림파스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정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지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원스 14:25 직장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끼 탐험대
15:20 꼬마키사 마이크 15:35 오솔 상차 15:45 코코코 다코 16:15 두디다쿵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똥똥똥 유치원1~2(재) 17:15 울강한 소방차 레이(재) 17:30 뽀뽀똥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40 다크우울	20:50 세계테마기행 <남국의 매력을 품은 섬, 타이완 4부 초록의 섬, 루이오> 21:30 한국기행 <오지마라 오지 4부 다시 '오지'알을 시간>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책대로 한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우리는 왜 항상 일을 미루을까?>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일 (음 1월 6일 庚申)

子	48년생 상대를 위한 자제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되리라. 60년생 결혼 기쁨이 다소 문제가 아니다. 72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크다. 84년생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9, 23	午	42년생 가까스로 반전되어가고 있다. 54년생 활용 가치를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6년생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78년생 선함을 인식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90년생 복작하다. 행운의 숫자 : 73, 54
丑	49년생 다음이 더 나으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61년생 결혼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73년생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85년생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양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18, 33	未	43년생 활로를 여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55년생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적절한 해답을 얻는다. 67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면 처리가 용이하다. 79년생 남비가 있을 수다. 91년생 성숙함을 보일 줄 아는 국망이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1, 66
寅	50년생 초심을 잃지 않은 원칙적 설정이 길사로 이끈다. 62년생 상황을 잘 살펴 본 후에 행하라. 74년생 대의를 위해서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86년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니라. 행운의 숫자 : 59, 96	申	44년생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56년생 슬모없다고 여겨왔던 것이 오히려 이롭다. 68년생 초석이 될 만한 계기를 마련하는 운로라 할 수 있겠다. 80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02
卯	51년생 오랜 인연을 맺게 될 이가 보인다. 63년생 복덕성이 멀리에서부터 비추고 있으니 상당한 결실을 도출하는 형세로다. 75년생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파악할 수 있다. 87년생 버거로움이 대단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05	酉	45년생 혼란스럽겠다. 57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69년생 만사여로다. 81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 아니다 싶으면 미련을 버리고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1, 99
辰	52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기탄없이 행하라. 76년생 한 발씩만 양보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 88년생 가까스로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6, 12	戌	46년생 아예 아니함만 백 번 못 하느니라. 58년생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일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70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자. 82년생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게시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93, 27
巳	53년생 변동 사항이 생기나 차질을 주지는 못 한다. 65년생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불행해지리라. 77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89년생 진행하기보다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40, 06	亥	47년생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라. 59년생 안목을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71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83년생 바람직할 일을 피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7, 6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